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0월 26일(일) 제1561호



지금 여기, 사도행전!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온 누리와 나눔, 그리고 함께'
10월 21~23일 온누리사역축제(OMC) 온 누리에 온누리교회 공유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은 '온 누리와 나눔, 그리고 함께' 하는 축제였다. 국내외 교회, 선교단체, 성도들과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 사역 등을 공유하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문화'를 통해서, '선교'를 꽃피우는 축제의 장(場)이었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써 내려온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역사와 비전, 목회 철학과 사역 DNA를 온 누리에 마음껏 나눴다. 온누리교회 및 협력 기관의 사역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도 마련했다.

온누리사역축제(OMC)는 지난 10월 21~23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주제로 막 올랐다. 국내외 교계 리더십 및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2055명이 참석했다.

교회, 복음으로 서다!

온누리사역축제(OMC) 첫날(21일)은 '교회, 복음으로 서다!'를 주제로 주제강의, 패널토의, 선택식 강의, 저녁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 복음의 공동체', 이인용 장로(법무법인 율촌) '세상이 왜 이런가요?'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세계관과 복음'을 주제로 했다.

패널토의 주제는 '반기독교 사조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대응'이었다.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류현모 교수와 신무환 장로가 패널로 참석했다.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속주의, 젠더 이슈 등을 주요 문제로 진단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과 핵심 가치, 중요성 등을 공유했다.

선택식 강의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교회'를 주제로 이어졌다. '40년의 고백, 예배로 말하다: 하나님 찾으신 바로 그 예배', 'Acts29 비전과 함께하는 온누리 양육', '온누리교회의 DNA 큐티', '온누리교회의 목

회철학', '온누리교회의 순장을 세우는 순장학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선교 이야기' 등을 주제로 17개 강의가 이어졌다.

저녁집회에서는 연합찬양사역팀이 특선했고, 바샤르(Bashar M. Yousif) 선교사 간증,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온전한 복음' (엡 2:8~1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이튿날(22일)에는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를 주제로 주제강의, 패널토의, 선택식 강의, 저녁집회가 이어졌다. 주제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 문화의 변혁자', 김경훈 집사(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AI 시대와 교회',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 박사(랭함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폭력, 고통, 두려움의 세계 문화 속의 선교'를 주제로 했다.

패널토의 주제는 'AI 시대 미디어홍수 속에서 기독교문화 확산방안'이었다. 김경훈 집사가 사회를 보고, 유혁 교수(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전진국 대표(CGN)가 패널로 참석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 문화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선택식 강의는 'AI 시대, 문화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과 교회'를 주제로 열렸다. '목회적 리더십을 세우는 목회행정 이야기', '21세기 여성사역의 나아갈 방향과 다양한 사역들', '부부의 대화와 성(性)',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wig는 도구로서의 미디어본부', '차세대와 가정신앙문화 세우기' 등을 주제로 16개 강의를 했다.

저녁집회에서는 사랑채버가 특선했고, 에브게니(Kim Evgeniy) 목사 간증, 이동원 원로목사(지구촌교회) '섬 곁의 무성한 가지처럼' (창 49:22)을 주제로 설교했다.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

셋째 날(23일)은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주제강의, 패널토의, 선택식 강의, 저녁집회를 했다. 주제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 선교의 촉매제', 넬슨 제닝스(Nelson Jennings) 박사(GLMF) '변화에 잘 대응하는 선교', 유병국 선교사(WEC) '글로벌 선교 협력'을 주제로 했다.

패널토의 주제는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였다. 김홍주 목사가 사회를 보고, 넬슨 제닝스 박사, 유병국 선교사, 한충희 목사, 김태완 목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을 공유하고, 세계 선교 현황을 살펴보면서 선교를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택식 강의 주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교의 역할과 교회'였다.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 및 구조 이해하기',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한 영혼을 귀하게 <최고의 행복> 세미나', '더멋진세상 만들기', '사랑의 발자취, 장애인 사역 이야기' 등을 주제로 17개 강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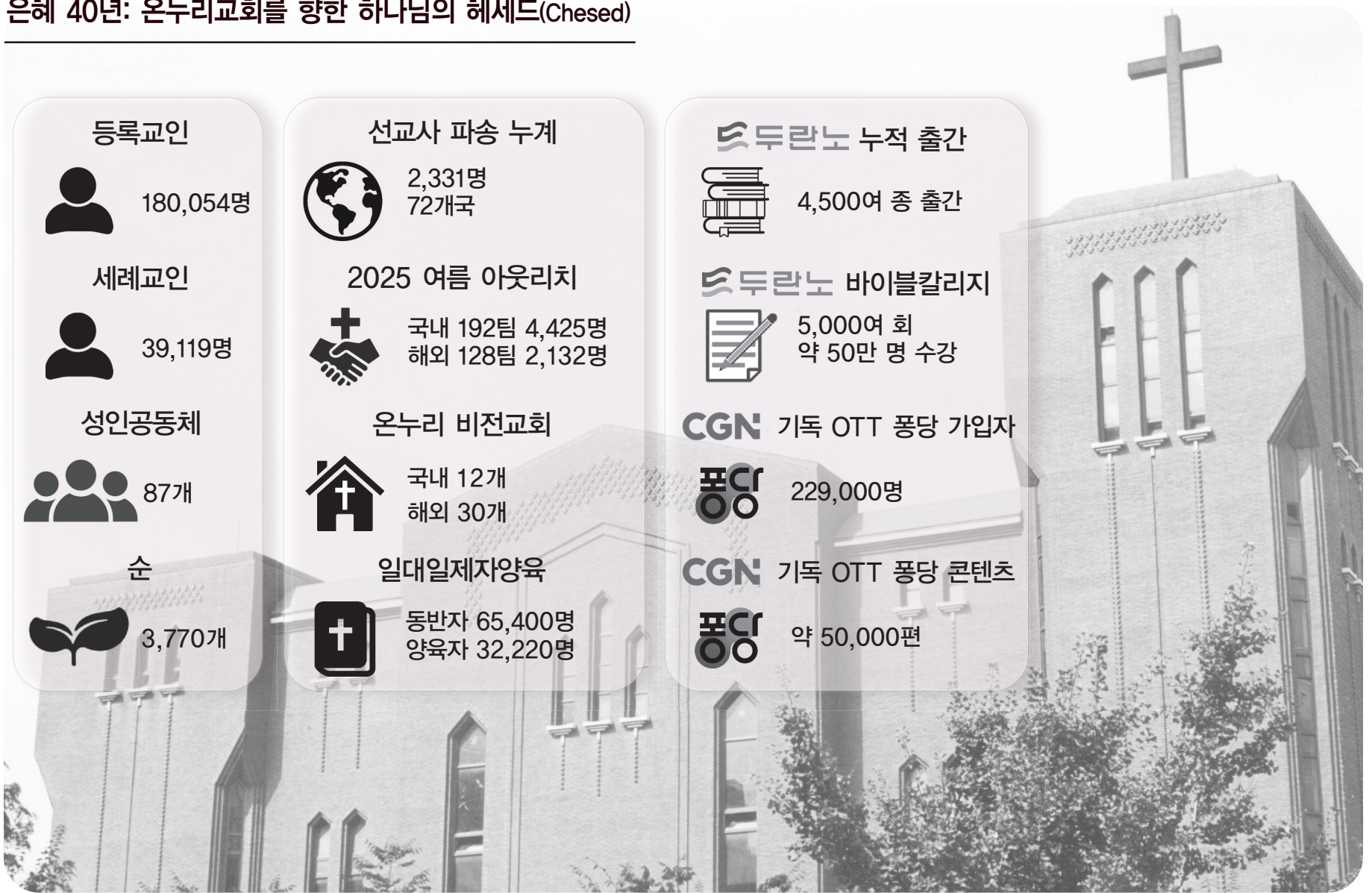
저녁집회에서는 선교사연합성가대가 특선했고, 존(John) 목사 간증,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선교사역 완성' (마 24:14)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지숙 권사(양천공동체)는 "온누리사역축제(OMC)에 참석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며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순종, 천사랑 선교사(두란노국제선교회, 가평) 부부는 "이번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과 사상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켜내고 전해야 하는지를 깊이 배웠다"고 말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은혜 40년: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Chesed)



믿음 40년: 산 돌(Living Stones)이 말하다

온누리교회 1세대	온누리교회 2세대	온누리교회 3세대	온누리교회 4세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1986년 1월 초, 임시 건물에서 드린 주일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부드럽고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 영혼의 호흡을 나누었고, 하용조 목사님께 소그룹 사영리 제자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새벽기도회에 출석했고, 교회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2천1만’ 비전을 선포하실 때는 ‘과연 저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비전이 선포되고, 믿고 따르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은 비전의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온누리교회 27기로 넘어오면서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과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을 받아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역사가 우리의 다음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부흥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조향진 장로 (한강공동체)	“큰 은혜 그리고 교회의 부흥”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온 것은 1997년 2월입니다. 당시 큰아이가 7살이었는데, 소아암에 걸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라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아프면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위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 큰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는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가정사역이 생소했는데, 온누리교회는 한발 앞서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래서인지 타 교회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크리스천과 넉리스천 가릴 것 없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가훈 총무와 순장으로 섬겼는데 대부분 시간을 교회 일을 할 정도로 폭 빠져 지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40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온누리교회에 또 한 번 성령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기도원이 생기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금세중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온누리키즈의 성장 그리고 소망” “저는 온누리키즈(Kids)입니다. 10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온누리교회 초등부를 다녔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일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바이킹을 타고 놀았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온누리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 진짜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늘대학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늘대학부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대학부에서 저만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웃리치 팀장도 맡았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성인부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젊은 부부를 위한 공동체를 더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재 자매 (하늘대학부)	“착하고 충성된 내 종” “지금 속한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곳,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꼭 한번 와보길 바라는 근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차세대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되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전하고, 다음세대 모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어진 목적,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평생 그분만을 경외하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것도 중요하게 없다는 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세대가 본받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배예성 학생 (파워웨이브)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축제 ‘나와 너 그리고 온 누리’



온누리교회 40년, 담대한 실험 〈지금 여기,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루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 나왔다. 온누리교회 14개 사역본부의 역사와 은혜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편찬위원 170여 명을 포함해서 성도 300여 명이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책이다.



함께 달리고, 함께 완주하다 ‘ONNURI 40 RUN’ ‘함께 달리고, 함께 완주하다’를 주제로 ‘ONNURI 40 RUN’ 현장 마라톤 대회와 주간 인증 챌린지가 열렸다. 대회는 지난 10월 18일(토) 이촌 한강공원에서 5km, 10km 코스로 진행됐다. 40개 팀 총 240여 명이 참가했다. 10월 13일(월)부터 23일(목)까지는 ‘주간 인증 챌린지’를 했다.



웹진 ‘온누리교회 인사이드’ 발간 온누리교회 40년 발자취와 역사, 사역을 소개하는 웹진 ‘온누리교회 인사이드’ (webzine.onnuri.org)를 발간했다. 온누리교회 ‘본부별 백서’, 온누리교회 연사(온누리행전 14년), 〈온누리교회 20년〉, 〈온누리교회 25년〉, 〈온누리행전 30년〉, 온누리교회 사역별 역사자료 및 미디어 자료를 볼 수 있다.



온누리 40주년 기념 라이브 팟캐스트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0월 16일(목) ‘온누리 40주년 기념 라이브 팟캐스트’를 진행했다. 배우 권오중과 CCM 가수 여니엘이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조호영 목사, 이용만 장로,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온누리교회의 창립, 성장, 비전 등 생생한 이야기를 나눴다.



온누리사역축제(OMC) ‘지금 여기, 사도행전’ 온누리사역축제(OMC)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주제로 지난 10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막 올랐다. 국내외의 교계 리더십 및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2,055명이 참석했다. 온누리사역축제(OMC) 참가자들은 주제강의, 패널토의, 선택식 강의, 저녁집회에 참석하고, 사역 부스 등을 탐방하며 온누리교회의 역사와 사역, 비전과 철학을 배웠다.



‘온누리 40주년 기념 웹페이지’ 개설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웹페이지(40th.onnuri-church.com)도 개설했다. 온누리교회 역사를 연도별로 확인하는 ‘히스토리’, AI 기술을 활용한 온누리교회 과거 사진을 볼 수 있는 ‘추억의 사진전’, 증강현실(AR)로 온누리교회를 둘러보는 ‘온누리교회 AR 체험’ 기능 등을 제공한다.



온누리장로합창단 ‘감사 찬양 버스킹’ 온누리장로합창단이 지난 10월 19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동빙고근린공원에서 창단 13주년과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찬양 버스킹’을 했다. 단장 유의준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감사 찬양 버스킹이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온누리교회 본부 및 협력 기관 소개 ‘OMC 이벤트 부스’ 온누리교회와 협력 기관(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에셀선교회, CGN, 두란노서원, 두란노국제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복지재단, NGO 메디엑세스, Acts29 비전빌리지, BEE KOREA)의 사역 소개와 체험 활동을 하는 ‘OMC 이벤트 부스’를 마련했다.



온누리사역축제(OMC) 씬, 그리고 교제 온누리사역축제(OMC) 기간에 동빙고근린공원이 활기찬 ‘만남의 광장’으로 변신했다. 참가자들이 틈틈이 공원에 나와 버스킹을 즐기고, 포토존에서 추억도 남겼다. ‘반백’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씬을 누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40주년 축제사진

온누리교회 40주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0월 21일(화) '교회, 복음으로 서다!

주제강의 1

교회, 복음 중심의 공동체

- 이재훈 위임목사 -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은 복음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입니다. 복음의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사실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분의 부활로 펼쳐진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복음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적 기초와 신학적 비전, 사역의 형태를 모두 교정하고 형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려는 것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율

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는 종교화되고, 나의 노력에 근거하며, 두려움 때문에 행합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깁니다.

둘째, 다원주의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진리에 이르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보다 의심을 선호하게 하고, 과학을 우상처럼 따르게 합니다.

셋째, 공로주의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순간 나중 된 자가 되며,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제강의 2

세상이 왜 이런가요?

- 이인용 장로(법무법인 율촌 고문) -

작년 독일의 '성별 자기 결정법' 발효, 우리나라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950달러 이하 절도 경범죄 규정 완화' 등의 결정은 '인권 옹호', '차별 금지', '평등 원칙',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말들로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사상가들은 진리와 선을 물었으나 인간의 삶은 불평등과 차별이 공공연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에 기초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공산사회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불과 70여 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제도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유산은 오늘날 인본주의, 인권 담론, 젠더 혁명을 포함한 정체성 정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배경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불평등'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에 따르면, 세상에는 여러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안과 밖을 가르며, 기준 안에서 기준의 밖을 억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억압받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논리에 따라 '기준이 문제이고, 이 기준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토대는 '진리'입니다. '기준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전제는 기준의 토대가 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는 것은 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기준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상대성'이며, 지금 우리가 사는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는 진리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관

단이 기준입니다.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도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선입니다.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를 외치며 스스로 주인이 되려하지만, 진리가 없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5)이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32)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제강의 3

세계관과 복음

-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의 포괄적인 틀'로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듯 세계관은 정보를 흡수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믿음과 가치관이 생기고,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행동은 일정한 패턴이 생기고, 그것이 습관이 되

어 인격을 형성합니다. 결국, 인격의 근저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가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가지고 살아온 세계관에 대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이 되기 쉽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자신의 세계관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세계관은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뉘

며, 기독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신앙은 성경 내용에 기반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은 성경 지식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큰 이야기(메타 내러티브)와 등장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기에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효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준 삼아야 합니다. 세계관 공부는 '세상의 공격을 성경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서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피고석에 서 있고, 인간이 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우리는 피고석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녁집회

온전한 복음(에베소서 2:8~10)

-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내 죄는 옮겨지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광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서서평 선교사와 관련된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서서평 선교사의 제자였고, 어머니는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이일학교 출신입니다. 어릴 적 거룩한 성경 인물 같은 믿음의 어른들을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고, 그 참혹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

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대학은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철학과를 택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친구 꼬임에 넘어가 수양관에 놀러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 제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마음에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고,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외롭거나 힘들 때, 기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로 새 인생

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 인생에 대해 주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이 귀한 온전한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온전한 복음으로 살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OMC 집회 영상 다시보기

온누리교회 40주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0월 22일(수)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 주제강의 4

교회, 문화의 변혁자

— 이재훈 위임목사 —

온누리교회 목표 철학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중심,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문화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는 문화는 남았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교회가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창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문화에 순응

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문화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 내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니버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문화의 대립’입니다. 이는 세속 문화는 악한 것이므로 교회는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문화의 일치’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영지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위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세상 문화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입장이 이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문화의 역설’입니다. 양쪽이 긴장 관계에 있기에 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충돌된다는 마틴 루터의 입장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분’입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화 영역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문화 변혁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번성해 가득함으로 다스리라’는 통치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1:28).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회가 문화의 변혁자가 되려면 기관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급진적 사회 변화를 변혁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AI를 중심으로 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지금이 문화 변혁의 기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더하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기를,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 주제강의 5

AI시대와 교회

— 김경훈 집사(2000선교본부) —

AI는 이미 글쓰기, 고객 상담, 코딩 자료 분석, 이미지 생성 등 여러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돕거나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속도의 유혹’입니다. AI의 속도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과 절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문, 설교문, 간증문을 성령님 없이 AI만 가지고 작성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을 담아 사역에 AI를 사용한다면 성령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둘째, ‘신뢰의 기준’입니다. AI의 답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데이터의 산물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적이지 않은 자료가 많기에 AI가 이것들을 학습한다면 잘못된 답을 낼 위험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적인 콘텐츠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심고, 말씀을 기준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관계의 경제성’입니다. AI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사람보다 AI와 관계 맺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가정의 공동체성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자라도록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모임을 지속해야 합니다.

넷째, ‘죄의 확장’입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지만 동시에 인간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교만도 함께 확대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 4:7). 우리는 기술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불안해집니다. 창조주를 떠났던 인간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 하나인 AI조차 두려워합니다. 결국, AI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인간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I시대 교회는 죄의 현실을 더욱 직시하고,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기술 속에서도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AI를 성경적으로 활용하고, AI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도합니다.

▣ 주제강의 6

폭력, 고통, 두려움의 세계 문화 속의 선교

—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랭함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

선지자 하박국은 역사적으로 끔찍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제기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의와 거짓, 폭력과 전쟁이 난무했습니다. <하박국>을 통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섯 가지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보는 모든 악

에 대해 하나님께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할니까?”(함 1:2-4)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나는 네가 믿지 못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함 1:5)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

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 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구원의 믿음을 넘어 순종과 신뢰로 성장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탄식과 저항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악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식하며 항의했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 거짓, 고통을 영속시키는 자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깊이 알 때 세상의 거짓된 대안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절망 속에서도 “주 여호와와 내 힘이십니다”(함 3:19)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행동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분별력, 믿음, 기도, 그리고 말씀과 행위 속에서 전인적인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 저녁집회 2

샘 곁의 무성한 가지처럼(창세기 49:22)

— 이동원 원로목사(지구촌교회) —

하용조 목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과 그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한국 교회의 공동 숙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셉을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형제들의 파동

립, 노예 생활, 역울한 감옥 생활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일생 역시 질병과 싸우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온누리교회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담을 넘는 수단이 ‘문화’라고 생

각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의 담을 넘어 다른 곳까지 심어지려면 문화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문화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한 문화의 변혁자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의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 감옥, 애굽까지 모두 ‘요셉 때문에’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복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요셉의 내면에 존재하던 맑은 영성의 샘에서 애굽 땅을 적시

는 은혜를 퍼 올렸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따라 살면서 남긴 중요한 흔적은 ‘인격적 열매’입니다. 요셉이야말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서 맺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입니다. 아홉 가지 측면을 가진 단일한 인격,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고급진 문화를 만들어 내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40주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0월 23일(목)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

주제강의 7

교회, 선교의 촉매제

- 이재훈 위임목사 -

모든 교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잃으면 두 번째 유형,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됩니다.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소명을 잃어버린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사가 오래될수록 세 번째 유형인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박물관처럼 되버리고,

모든 의사결정이 과거에 머물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헌신, 도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헌신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선교가 교회의 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양식을 먹고 호흡만 한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교가 영혼의 운동입니다. 교회를 있게 한 것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선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합니다. 둘째,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입니다. 과거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목회자의 주요 일과는 ‘심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방, 즉 공동

체의 만남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촉진하고 형성시키는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촉매’라는 것은 이리합니다. 첫째, 교회와 선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독생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둘째, 교회의 선교는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존이 교회의 최고 목표가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계속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제강의 8

변화에 잘 대응하는 선교

- 넬슨 제닝스 박사(GMLF 이사장) -

그동안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새로운 상황과 도전, 변화에 잘 적응해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구약의 요셉과 모세, 신약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며 적응했고, 그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변화 속에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적응하며 성장하고, 배웁니다.

온누리교회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변화에 반응해서 이 땅에 온 중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위성방송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복음

을 전하는 일들을 온누리교회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한 환경에서 함께 기도하고 적응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온누리교회가 대형교회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가자는 ‘Acts29 비전’은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누리교회만이 <사도행전>을 이어간다’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교만과 안주함’의 도전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영이 자만과 안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 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민족의 교회와의 동역’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가나, 일본,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국과 비교해서 연약해 보이고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고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주제강의 9

글로벌 선교 협력

- 유병국 선교사(WEC) -

지금 우리 눈앞에 마지막 남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어떤 곳보다 조직적이고 격렬하게 복음에 저항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꾼과 전략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세기 동안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서구 교회가 심각한 선교사 인력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선

교단체 WEC의 통계를 보면, 서구 선교사 수가 불과 10여 년 만에 70%가량 줄었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도 50%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장로교를 처음 전한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마저 올해 3월 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3만 명에 가까웠던 한국 선교사가 현재 2만 1천여 명으로 8천 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이지만 3천여 개 교회가 있고, 20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전체 국민 70%, 케냐는 1,800만 명이 개신교인입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도 2,50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세워 놓은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WEC가 이 지역에서 선발한 선교사들은 젊고 헌신적이며, 이미 다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현지에 바로 적용되는 효율적인 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의 경제적 여건상 적은 선교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많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곳이 있는 반면, 한국이나 서구 교회는 경제력은 있지만, 보낼 일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선교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선교 협력입니다. 어떤 나라의 일꾼이든 힘을 모아 마지막 남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녁집회 3

선교사역 완성(마태복음 24:14)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

저는 하용조 목사님과과의 만남을 평생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천1만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현장에 계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

Finishing the Task’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교라는 과업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선교를 빨리 끝내라니,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는 끝내야 하는 사역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끝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마 28:18~19).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이 사명을 반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데 게을러서도 안 되고, 그 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과 교회가 현실의 기준을 잣대로 ‘선교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내는 능력을 주시든지, 가는 용기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

면 예수님이 오십니다(마 24:14).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라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한 번 더 하용조 목사님이 가르치신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저는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누리에게 ‘복음’을 배우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앞에

지난해 농어촌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온누리사역축제(OMC)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온누리사역축제(OMC) 참여를 권유하기에 곧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저는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남포신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년 전 제가 부임했을 때 성도님이 다섯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스무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삶을 사는 교회, 예수님을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포신흥교회 어느 성도님들은 차를 타고 왕복 두 시간 거리를 오가십니다. 잔치를 열 때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듯, 저는 늘 말씀을 들으러 먼 거리를 오시는 성도님들께 맛있는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포신흥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김일환 목사(남포신흥교회)

복음 위에서 신앙을 정립하도록 돕는 것, 복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저의 목회적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온누리사역축제(OMC) 첫날 강의와 말씀을 들으며 찾았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세속화 문제, 다음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

습니다.

선택 강의를 ‘영적 성숙을 위한 회복사역의 이해’ (이기원 목사님)와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김재석 목사님)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돌봄사역을 하는데, 회복사역 강의를 들으면서 돌봄사역과 접목한 전인적인 치유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웠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청년, 중년, 노년 성도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온누리사역축제(OMC)는 저의 신앙 여정에 큰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변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앞에 서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합니다.

온누리에게 ‘문화’를 배우다

필수 요소 복음, 교회, 문화

온누리교회 ‘도시미자립선교팀’ 초청으로 온누리사역축제(OMC)에 참가했습니다. 주제강의와 저녁 집회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선택 강의에 관한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강의는 ‘회복사역’, ‘청소년 사역’, ‘미디어 전도’, ‘복음 세계관의 응답’ 등이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교회가 고수해 온 전통적인 해결책이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노하우가 담긴 여러 사례와 강의가 참 유익했습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둘째 날 강의 ‘교회, 문화의 변혁자’를 들으면서 복음, 교회, 문화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개념임을 배웠습니다. 복음과 교회만 있고, 문화적 접근이 없으면 복음을 전달하는 채널이 닫히고, 복음과 문화만 있고 교회가 없으면 공동체의 권면과 위로,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교회와 문화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의



안대현 목사(군산명성교회)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은 ‘치유와 회복 사역’입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상황이 매번 다르기에 늘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와 육아, 생애와 관계의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심이 자연스레 이 땅의 것에 머물게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

도들이 삶에서 겪는 큰 어려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치유와 회복 사역’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외면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서 멀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 이제는 새로운 전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납치 및 유괴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방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복음 전파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명성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보내주신 전도 물품을 ‘전도 나눔 데스크’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도 물품 5천여 개를 교회 앞에 비치해 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주는 것(마 10:8)의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전도 물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도록, 온라인으로 복음을 접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문화적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에게 ‘선교’를 배우다

계속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

저에게 온누리교회는 영적 고향과 같습니다. 저는 2003년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녔는데, 친구의 권유로 서빙고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듬해 안산M센터에 러시아어예배가 생겼고, 몇 명의 지체들과 함께 그 예배를 섬겼습니다. 당시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이 매주 주일 30여 명씩 와서 예배 세팅, 음식 준비, 청소까지 도맡아 주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만난故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제 안에 거대한 비전이 심겼습니다. 온누리교회의 핵심 비전인 ‘Acts29’입니다.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이 제 안에 심겼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생전에 성도들에게 “7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훈련한 다음 선교지로 나가 헌신하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우즈베키스탄을 선교지 삼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고려



에브게니(Kim Evgeniy) 목사(타슈켄트 만민장로교회)

인 4세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관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비전을 배우고나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슬프고 고생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향을 떠났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와 문화, 아픔과 꿈까지 모두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다.

온누리사역축제(OMC)에 참가하려고 15년 만에 서빙고온누

리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와 변함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선교’라는 단단한 비전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번 온누리사역축제(OMC)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반쪽자리 공동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선교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선교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개신교 성도가 아직 0.1%도 되지 않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절실하고, 온전한 복음 위에서 있는 소수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처럼 늘 선교의 비전 아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며 동역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그 뜨거운 선교 열정과 비전을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지도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Acts29 비전’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온누리 40년,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11월 5~8일 '2025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OFFC)

온누리 미래성장분과위원회가 '2025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OFFC)를 오는 11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온누리 40년,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을 주제로 개최한다. 오픈예배, 사전강의, 주제강의, 패널토의, 발표 및 시상 등이 이어진다.

오픈예배는 11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사전강의는 11월 6일(목)과 7일(금)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 김지연 교수(한국가족보건의학회 대표) '하나

님의 형상으로', 장선범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행동하는 크리스천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본 행사는 11월 8일(토)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주제강의, 패널토의, 발표 및 시상 등을 한다. 주제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 박태성 교수(미래성장위원회 위원) '데이터와 설문분석으로 본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다.

패널토의는 '온누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과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다. 이

인용 서기장로가 사회를 보고, 하선희 대표(한국 폴슨 펠로우즈), 민준호 대표(IJM코리아), 김경훈 대표(Open AI 총괄대표), 이종호 형제(SNS청년부 대표MC)가 패널로 참석한다.

'2025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OFFC)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 자녀를 대상으로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오후 2~4시 40분).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5 엔젤트리' 사연 모집

11월 16일까지 홈페이지나 목회행정실

사회선교부에서 '2025 엔젤트리' 사연 신청을 받는다. 11월 16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행정실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 신청서에는 돕고 싶은 이웃의 연락처와 정확한 도로명 주소, 사연, 전하고 싶은 선물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은 5만 원 이하(옷,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후원이나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2025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2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모든 사연이 연결될 때까지 게시한다.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엔젤트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운동이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매해 겨울 엔젤트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온누리교회 엔젤트리 573-910007-03004(서빙고)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교회 도서관 '2025 독후감 대회' 개최

11월 30일까지 <예수의 생애> 독후감 제출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5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1월 30일(일)까지 기독교 고전 <예수의 생애>(찰스 디킨스 원작. 차세대 두란노판, 성인 믿음사 판 추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이하 3장 이상, 초등부 4장 이상, 소년부 5장 이상, 중고등부 6장 이상, 성인 7장 이상이다. 11월 3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

년센터 3층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책 <예수의 생애>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대출받거나 집에 있는 책을 읽으면 된다. 책을 새로 구매할 경우 도서상품권 5천 원을 지원한다(두란노서점에서만 구매 가능). 제출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12월 14일(일)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2025 땅끝의 증인들 '웰컴투 아마존' 편

10월 31일 오전 10시 20분 CGN TV 방영

CGN 대표 선교 다큐멘터리 2025 땅끝의 증인들 '웰컴투 아마존' 편을 10월 31일(금) 오전 10시 20분 CGN TV 채널에서 공개한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땅끝의 증인들'은 알려지지 않은 오지, 세상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2025 땅끝의 증인들 '웰컴투 아마존' 편 주인공은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 부부다.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국경이 접한 극빈층 거주지에서 '부에노스 아미고스' (Buenos Amigos, 좋은 친구들) 공동체를 설립해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에 우물 2개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물 2개를 설치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려고 Nchere Group Kan deo Village와 Chilindime Village에 각각 설치했다.

수인성 질병 감염률을 감소시키

고, 지역 주민과 아동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우물위원회도 구성했다. 우물 정비 인력과 연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우물 유지 및 보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10월 세례자

■서빙고

강귀순 630801
남지유 930323
박건호 970429
박중숙 490625
유수빈 891204
유아
조이안 250124
조상현 한다숨

■양재

김강현 821004
박정윤 970728
박희정 880105
양아름 780429

유아

권시온 250226
권경수 최신혜
갈이든 220630
길보경 김예지
김선호 240702
김태현 정성은
김이룬 240529
김영현 김주는
김하든 250403
김선욱 조예나
모건우 240228
모제영 정다희
모준우 240228
모제영 정다희
어아윤 211005
어규현 도현경
오세은 240922
오정현 이혜슬

<대학청년>

■여호수아

김태준 941011
유은재 971217
이건화 000107
이주현 881126
조경주 900122
진유진 930406
최승현 881006

입교

김미송 970107
김종화 930412
유아
이해나 240926
이선필 이다현

■허브

김건우 990722
입교
권예진 000509
김윤아 050718
류솔비 041014
조시우 060510
하예림 001228

■SNS

유지혜 900907
임인택 931129
황승현 990529
입교
김채은 961027
이주영 970917
유아
이소금 241104
이주혁 정두리
정주성 250422
정희철 유혜리

'세 겹줄, 삼포요시의 인생'

러브소나타 시가 10월 29일~30일 모리야마 시민홀

러브소나타 시가가 10월 29일(수)과 30일(목) 일본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열린다. '세 겹줄, 삼포요시의 인생(하나님과 이웃과 조화)' (전 4:12)을 주제로 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29일(수) 가스펠 나이트에서는 시

모자와 겐지 목사가, 30일(목) 러브소나타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챔버, 가수 선예, 크룩스, 김영미 등이 특순한다. 집회 실황을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문의: 02-570-7415

/ 박지혜 기자



시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10월 26일(일) 모든 수고와 열매 맺고 러브소나타가 주의 영광 드러내는 축제 되도록
10월 27일(월) 모리야마 시민홀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10월 28일(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가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10월 29일(수) 가스펠 나이트 찬양 집회에 성령의 불,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임하기를
10월 30일(목)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10월 31일(금) 일본 교회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일어나도록
11월 1일(토) 일본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바로 잡습니다.

지난주 온누리신문(10월 19일 자) 라 '사랑부 예배 간증'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이 아니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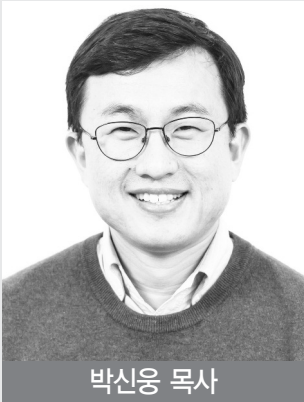
QR 코드를 찍으면 10월 넷째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박신웅 목사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지난날의 기쁨이었고, 우리 입술의 불평이 ‘지나온 시간의 감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많은 눈물의 기도, 직장과 비즈니스, 관계와 가정, 상황의 많은 눈물이 사실은 삶의 큰 기쁨이었고, 큰 감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므낫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땅 분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축복을 누립니다. 땅 한 평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고, 큰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국지적인 전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지난날의 감사와 기쁨보다 오늘의 부족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빛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뭇만 유산으로 주십니까?’”(14절).

여호수아에게 항변하고 불평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한 지파로서 가장 큰 인구와 넓은 땅을 소유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두 지파를 합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와 많은 땅을 소유했던 민족이 요셉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어떤 지파보다 많은 땅과 인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흔아홉 가지의 축복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와 자신의 지파를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모습이 요셉 지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배 의식에 젖어있고, 비교의식 속에서 생각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그 어떤

상황보다 가슴 아픈 이유는 자신이 요셉 지파 출신, 에브라임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의 위대한 믿음의 용기를 바라봤을 때 자신의 지파를 향한 기대와 소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터인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의 다음세대를 이어갈 요셉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호통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요셉 지파가 일어나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연약한 차세대가 자라도록 기다려주고, 연약한 다음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변화를 기다리시고, 다윗의 생애에 함께하시며 그를 빛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자녀들이, 다음세대들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믿음의 도전과 싸움처럼 말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에게 나타난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대신 선언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땅 분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 주는 게 아니라 산악지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땅을 점령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여전히 요셉은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벤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16절).

당시 문명 속에 머물던 이스라엘은 그 산악지대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철 전차라는 큰 피해를 입히는 최신 무기를 장착한 용맹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항변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승리를 약속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네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17~18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다음세대를 향한 도전은 ‘승리를 약속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 속에 철 전차와 같은 인생의 대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차례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요단강과 여러 고성이라는 큰 철 전차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백 가지 요소를 가진 이유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한 문장이 승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건강이 인생의 철 전차로 우리를 가로 막습니다. 재정적인 환경과 상황, 우리가 가진 여러 한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들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 다음세대를 가로막는 그 어떤 강력한 철 전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합니다.

역사에 가장 큰 전차로 여겨졌던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다섯 개의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고 선포하며 물맷돌을 흔들며 달려가는 순간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다음세대의 다윗이 하나님의 고백을 회복한다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그 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 전차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10가지, 100가지, 1만 가지의 이유를 드러내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음성은 “아멘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유언적인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 메

시지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수 24:15).

‘나와 내 집’은 크게는 이스라엘이지만, 작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유다 지파보다 못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세겜의 돌은 과거를 상징하는 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시작점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 분기점이 마치 여호수아의 세겜 연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위대한 일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다음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직 시몬인데 베드로라 불러주시며 연약한 자를 품어주셨습니다. 도저히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고,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천국과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는 사명을 통해서 다음세대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세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음세대, 세계 열방의 다음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철 전차도 붕괴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다음세대에 남겨야 할 유산, ‘기독교 신앙’

기네스 가문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대물림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나는 우리 집안의 5대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대의 간달프이자 선지자라 불리는 오스 기네스의 5대조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250년 넘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가문의 좌우명을 실천해 온 기네스 가문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기네스 맥주 회사를 창립한 아서 기네스(1725~1803)는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 깊은 신앙인이 되었다. 그는 웨슬리에게서 “부는 남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웠고, 평생 그 원칙을 실천하며 후대에도 그 정신을 이어주었다. 그는 여러 자선 활동을 펼쳤으며, 평일에 일하느라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주일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쳤다. 또한 아일랜드의 전통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결투 문화를 종식시키는 운동에도 참여했다.

그가 만든 맥주는 대부분 사람이 마시던 진(gin)보다 해롭지 않았고, 끓인 물로 만들어 오염된 물보다도 안전했다. 종교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 아일랜드에서 그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했다. ‘부는 선을 위한 도구’라는 그의 신념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기네스 기업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가장 비위생적이던 도시 더블린의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공중보건학자를 고용해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 개혁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더블린의 생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던 1920년대에도 기네스 직원들이 누린 복지는 전설로 남았다. 오늘날 더블린을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만든 데에는 돈과 사업의 목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신실한 아서 기네스의 신앙이 있었다. 참고로 기네스 맥주는 20세기 말 매각되어 현재는 기네스 가문의 소유가 아니다.

기네스 기업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가장 비위생적이던 도시 더블린의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공중보건학자를 고용해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 개혁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더블린의 생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던 1920년대에도 기네스 직원들이 누린 복지는 전설로 남았다. 오늘날 더블린을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만든 데에는 돈과 사업의 목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신실한 아서 기네스의 신앙이 있었다. 참고로 기네스 맥주는 20세기 말 매각되어 현재는 기네스 가문의 소유가 아니다.

선교 현장 누빈 기네스 가문

아서 기네스의 막내아들 존 그라탄 기네스(1783~1850)는 한때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졌던 제인 데스테어와 결혼했다. 결혼으로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던 그녀는 어느 날 강 건너에서 그림 같은 밭고랑을 일구는 솜씨 좋은 농부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신앙의 본질, 진리, 성도의 정체성, 소명에 따른 믿음의 실천 방법을 배운다.”



사진은 지난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패널토의.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훗날 그녀는 존 그라탄 기네스와 재혼했고, 12대에 이르는 후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 부부의 둘째 아들 헨리 그라탄 기네스(1835~1910)는 부흥사이자 선교사 훈련가로, ‘복음주의 기네스 가문’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 창립자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 중국 선교를 결심했으나 테일러의 요청에 따라 영국에 남아 선교사 양성 학교를 세워 수많은 중국 선교사를 배출했다. 그의 딸 메리 제랄딘 기네스는 훗날 허드슨 테일러의 며느리가 되었다.

헨리의 아들 거슴 헛필드 기네스(1869~1927)는 1890년대 말 중국에 건너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운 의료 선교사였다. 그는 의화단의 난을 직접 겪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며, 같은 경험을 한 스웨덴 출신 선교사 제인 아프 산데베리와 결혼했다. 베이징과 허난성 카이펑에서 사역하던 그는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그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와도 친구였다.

그의 아들 헨리 기네스(1908~1996)는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인생의 목적을 되돌아보며, 부모의 뒤를 이어 중국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다. 의사인 아내와 함께 허난성 병원에서 사역하며 전쟁과 기근, 정치적 혼란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국민당군, 공산군의 포위를 겪었고, 세 아들 중 두 아들을 허난 대기근으로 잃었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자 체포되어 누명을 쓰고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결국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문화대혁명 때는 홍위병이 순교한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의 생전에 중국의 기독교

인은 75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으로 늘었다.

그는 기근에서 살아남은 아들의 이름을 ‘오스왈드’라 지었는데, 부모님의 친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다섯 살 된 아들을 상하이의 기숙 학교로 보낼 때 그는 작은 돌맹이에 “충성된 종이 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글귀를 새겨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아이는 그 돌을 만질 때마다 부모를 떠올렸다. 그 소년이 바로 오늘날의 오스 기네스(1941~)이다.

오스 기네스의 경고

오스 기네스는 어린 시절 난징 대학살과 같은 잔혹한 사건들을 직접 보거나 들으며 자랐다. 일본군이 1,700만 명을 학살하고, 황하 제방 폭파로 하룻밤 사이에 90만 명이 사망했으며, 석 달 동안 500만 명이 아사했던 허난 대기근으로 두 형제를 잃었다. 공산주의 체제의 공포 정치를 어려서 체험한 그는 삶과 죽음, 전쟁과 혁명, 폭력과 고통의 현실을 깊이 새겼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았다. 그들의 혁명은 결코 성공하지 않고, 그들의 억압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그들이 약속한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다.”

기근으로 죽은 형제들이 누리지 못한 생명을 생각하며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다. 그 생명을 드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소명 의식은 그의 일생을 지배했다. 부모가 중국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뒤 혼자 영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니체·사르트르·카뮈 같은 무신론 철학자들과 파스칼·도스토옙스키·체스터턴·루이스 같은 신앙 사상가들의 글을 비교하며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학과 철학, 인도 사상 등을 연구하며 그 확신이 더욱 깊어졌다.

그가 <소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것이나, “대조는 분별의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사회주의나 무신론 등 다른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기독교 진리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선조들이 그러했듯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가훈을 따르며, 조지 헛필드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전력을 다할 때 가장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80대의 오스 기네스는 서구 문명이 그 뿌리인 기독교를 잃고 위기에 처한 현실을 경고하며,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에 현재도 헌신하고 있다.

오늘날 온갖 거짓 메시지가 세대를 현혹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한다. “나는 오스 기네스도 아니고, 집안이 기네스 가문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 진리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도 진리다. 그러므로 누구나 두려움 없이 이 진리를 다음세대에 전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질문에 완벽한 해답을 즉시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치열하고 진지하며 정직하게 그 질문들을 다룰 때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 더 나은 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는 11월 5일(수) 저녁 양재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를 시작으로 11월 8일(토)까지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을 주제로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신앙의 본질과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 이 시대로 부름을 받은 소명에 따른 믿음의 실천 방법을 배우고, 다음세대가 이어받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다음세대에 최고의 유산과 지혜를 전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국가, 교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오스 기네스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다윗(행 13:36)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섬기다 잠들어, 주님께 “내 마음에 합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 날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오픈 예배: 11월 5일 양재 사랑홀
사전 강의: 11월 6~7일 유튜브
OFFC: 11월 8일 양재 기쁨홀
문의: 서빙고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

CGN, 선교 미디어의 본질(本質)에 집중하다

2025년 가을 신규 프로그램



MC 김재원 아나운서

THE NEW 하늘빛향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

시 청
안 내

CGN TV 월요일 오전 10시 20분

CGN 유튜브 화요일 오전 9시



월요일 오전 0시



1편 시청하기

20주년 특집 다큐

땅끝의 '웰컴투 아마존' 증인들

"세상의 땅끝(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

방송 일정 | 10월 31일(금) 오전 10시 20분

RE 다시, 성경! 바이블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와 함께
인물·사건 중심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

첫 방송 | 11월 4일(화) 오전 10시 20분



풍당 다운로드